

광주시의회, 광주시·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첫날

“학교급식 공급 업체간 담합 의혹” 이은방 의원

광주지역 학교급식 공급업체들에 대한 담합의혹이 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이 의원은 “광주시에 집단급식소 등록업체는 311개 업체인데 이중 지자체 단속으로 적발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10곳에 불과한데도 이들 업체와 급식계약 맺은 일선 학교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또 “급식공급업체 입찰 시 업체들의 입찰가를 살펴보면 10원 단위로 나뉘는 경우도 볼 수 있다”며 “이것은 담합을 하지 않고는 이뤄질 수 없다”며 입찰업체 간 담합의혹을 제기했다.

“지자체와의 업무협조로 업체 지도 단속 결과 위반사항 발생 시 즉각 교육청에 통보하고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이를 즉시 알려 적발업체와 재계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입찰 제한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시진핑(習近平) 중국 신임 공산당 총서기가 1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첫 공개 연설을 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예산 미집행 중단위기 조영표 의원

광주시와 광주시 교육청에 대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5일 광주시의 전기차 사업 중단 위기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저조 등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조영표(민주·남구 1) 의원은 이날 경제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는 지난해 11월 전기자동차 구입 예산 23억3100만 원(국비 12억 2000만원·시비 11억1100만원)을 편성해놓고도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내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 국비를 반납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가 근린공원에 CCTV를 설치하려고 지난해 1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차질을 빚으면서 관련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희곤 교육의원은 “2015 U대회를 위한 경기장 및 선수훈련시설을 위해 전남지역 시·군에 607억2200만 원을 지원한 반면 우수한 시설을 갖춘 광주지역 각급 학교체육관은 배제됐다”며 “광주시 교육청이 시와 단 한 차례 협의도 없이 뒷집만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시진핑, 당 총서기·군사위 주석 승계

당권·군권 동시 장악... “공직자 부정부패 반드시 척결”

중국 공산당이 15일 시진핑(習近平)과 리커창(李克強)을 비롯한 7인 상무위원 체제를 확정하고 제5세대 지도부를 정식 출범시켰다.

시진핑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 주석으로부터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한번에 넘겨받았다.

리커창-장더장-위정성-류윈산-왕치산-장가오리 순으로 입장에 당 서열을 알렸다. 당 서열은 정치국원 진입 지도부를 정식 출범시켰다.

신임 상무위원단은 시진핑과 총리 내정자인 리커창 이외에 장더장(張德江) 전 국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위정성(俞正聲) 전 국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류윈산(劉雲山) 국가부주석,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검사 위 서기, 장가오리(張高麗) 상무부총리로 짜였다.

중양군사위는 주석 아래 부주석 3명, 8명의 위원 체제로 짜였다. 이미 중앙군사위 새 부주석에 쉬치량(許其亮)·관장룡(范長龍)이 임명됐다. 나머지 부주석 한 자리는 조만간 상무위원급(將)에서 채워질 예정이다.

이 발언은 구체적인 대상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보시라이(薄熙來) 전 총칭시 당서기의 비리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향후 당과 정부는 물론 전 사회적으로 ‘정풍’ 운동을 펼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대불산단 일감 나눠달라” 대기업 찾아간 주영순의원

삼성중·대우조선, 임원파견 등 신속한 반응

일감부족으로 극심한 가동난에 빠진 대불산단을 살리기 위해 국회의원인 국내 정상급 조선사 최고경영자를 만나 일감 나눠주기를 호소하자 조선사들이 즉각 현지조사를 벌이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한 반응을 보이고있다.

설명하고, 건조선박 불려와 기자재 발주·구매 등 일감 일부를 대불산단으로 돌려줄 것을 호소했다.



임해 누구보다 대불산단 조선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통해 조선사업 불황을 타개해야 한다”면서 “이번 건의사항이 반영되면 대불산단 입주 기업이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o@

檢, 문재인 고발사건 저축銀합수단에 배정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전국저축은행피해자대책위원회가 문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피해자합동수사단(단장 최은식 부장검사)에 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회 예산심의 대선후로 미뤄지나

계수소위 구성도 못해... 22일 처리 불가능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대선 정국과 맞물려 파행을 거듭하면서 당초 목표 시한인 이달 22일에 처리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선 일정 때문에 예산안이 대선 이후에나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안 증액·삭감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15일 현재까지 계수소위 구성조차 하지 못한 실정이다. 전체 예결위원 50명 중에서 정당별 의석수를 감안해 12~15명 규모로 구성되는 계수소위는 예산심의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해 여야 모두 한 자리라도 더 확보하려고 기 싸움을 지속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선진통일당과 합당, 무소속 예결위원인 김한표 의원의 입당 등으로 자당 예결위원이 27명으로 늘었다는 점을 내세워 계수소위를 7명(새누리당) : 5명(민주당)으로 구성하자는 입장이다.

Advertisement for Hankook Land Real Estate, featuring a 95% discoun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Namyeong Gangbyeon City, highlighting investment opportunities and contact details for Solom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IZ Real Estate, offering various real estate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Landpia Real Estate, specializing in high-end real estate and investment.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Services, offering mortgage and hotel sale services.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Services, focusing on land and property sales.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Services, offering hotel and various types of real estate.